



미 증시, 유가 및 금리 하락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5일(화) 미국 증시는 1) 달러화 초강세, 2)침체 불안에 따른 유럽 증시 급락 등 악재가 상존했음에도 a) 국제유가(-8.2%) 등 원자재 급락, b) 대중 관세인하 기대, c) 시장금리 하락 사태가 에너지(-4.0%) 등 시클리컬 주들에게 약세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기술(+1.2%) 등 성장주들에게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혼조세 마감 (다우 -0.4%, S&P500 +0.2%, 나스닥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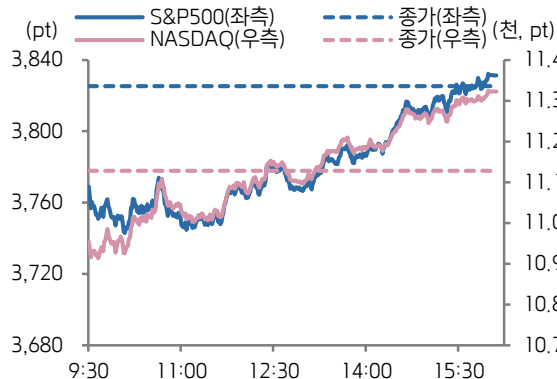
중국 관영매체는 류허 중국 부총리와 옐런 미 재무장관의 영상회담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대해 중국 정부가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 미 재무부 측에서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 시장적인 관행에 대한 우려 사항을 언급했다고 설명하는 등 양국간 요구사항이 의제로 거론된 가운데, 후속 회담을 통해서 실무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

블룸버그 등 외신에 의하면, 독일의 대형 에너지 업체인 유니퍼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스 구매비용을 소비자 요금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함에 따라 규제금융 절차에 들어갈 예정. 예상 규제금융 패키지에는 독일 주정부의 지분 인수, 혹은 가스가격 인상 등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한국의 6월 외환보유액은 전월에 비해 94.3억달러 감소한 4,382억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금번 감소폭은 지난 2008년 11월(-117.5억달러) 이후 최대 금액을 기록. 한국은행 측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 및 금융기관과의 예수금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감소 배경이라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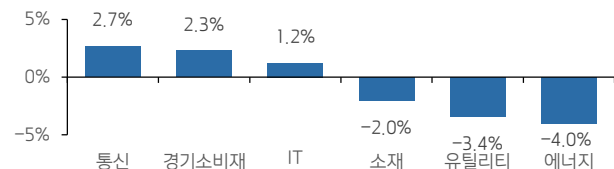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4.5로 전월(41.5) 및 예상치(49.6)를 모두 상회. 4개월 만에 경기판단기준선인 50 선을 넘었으며, 11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 제조업 지표에 이어 전면 봉쇄조치 완화의 효과가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유로존의 6월 서비스업 PMI는 53.0으로 전월(56.1)에 비해 둔화되면서 5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예상치(52.8)는 상회.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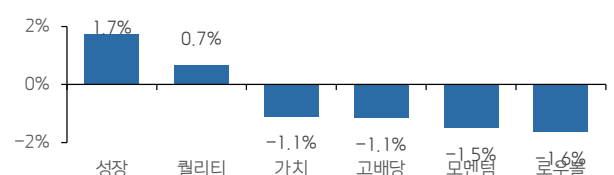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3,831.39 | +0.16% | USD/KRW | 1,300.08 | +0.26% |
| NASDAQ | 11,322.24 | +1.75% | 달러 지수 | 106.51 | +1.3% |
| 다우 | 30,967.82 | -0.42% | EUR/USD | 1.03 | +0% |
| VIX | 27.54 | +0.04% | USD/CNH | 6.71 | -0.01% |
| 러셀 2000 | 1,741.33 | +0.79% | USD/JPY | 135.85 | +0% |
| 필라. 반도체 | 2,477.64 | +0.78%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3,216.62 | -0.55% | 국고채 3년 | 3.285 | -13.5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3.365 | -11bp |
| Eurostoxx50 | 3,359.83 | -2.68% | 미국 국채 2년 | 2.818 | -1.5bp |
| MSCI 전세계 지수 | 597.74 | -0.49% | 미국 국채 10년 | 2.805 | -7.5bp |
| MSCI DM 지수 | 2,553.95 | -0.54%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992.80 | +0% | WTI | 99.5 | -8.24% |
| MSCI 한국 ETF | 57.00 | -0.7% | 금 | 1763.9 | -2.09%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7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8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8.9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선거래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여부 2.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수급 및 전반적인 국내 증시 수급 변화 3.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급등(+5.7%)이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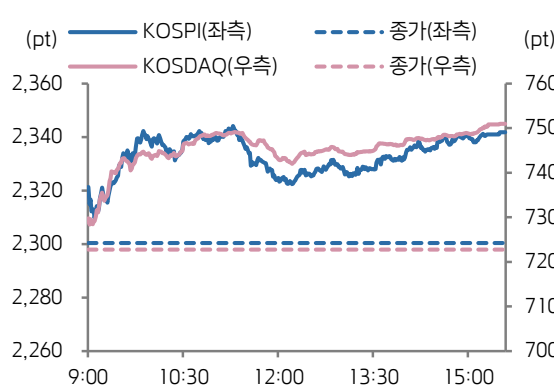
지난 1 일(금) 미 6 월 ISM 제조업 지수 부진에 이어 유럽증시 급락 및 WTI 국제 유가의 100 달러 하회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기를 중심으로 침체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 압력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 2022 년 이전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수요부진발 인플레이 하락은 중장기적 약세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음. 하지만 현재는 이례적인 고물가 환경 속에서 전쟁, 공급난 등 공급 측 인플레이 압력은 통제하기가 어려운 만큼, 수요를 건드려서 인플레이 압력을 낮추는 상황이라는 점이 과거와 차별화되는 부분.

이처럼 시장이 바라왔던 최선 혹은 차선(휴전, 공급난 해소 등)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수요의 강제 완작에 따른 인플레이 둔화라는 차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최악은 급격한 침체에 따른 수요 파괴).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불안 리스크는 올해 2 분기 증시 폭락기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있으며, 연준의 4 분기 이후 인상 강도도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다는 점 역시 불행 중 다행 요인(7 월 FOMC 75bp 인상 컨센서스). 그러나 차주 미국 6 월 소비자물가, 13~16 일 바이든 중동 방문 등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약세 상황 종료에 베풀기 보다는 상기 이벤트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

선거래일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대중 관세 인하 기대감,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 루머 등으로 급반등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코스피 +1.8%, 코스닥+3.9%)는 침체 경계감,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 등으로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전망.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마이크론(+5.7%) 등 반도체주와 알파벳(4.2%), 아마존(+3.6%), 테슬라(+2.6%) 등 성장주들이 업황 약재 기반영 인식 속 금리 하락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금일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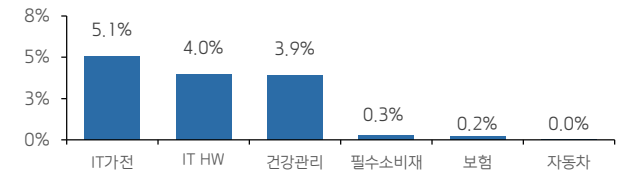
한편, 원/달러 환율이 역외에서 한 때 1,310 원대를 터치하는 등 환율 급등 배경은 유럽 경기 침체 리스크 발 유로화 약세 및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해 2021 연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IMF 의 적정외환보유액 비중(적정 비중 100~150%, 한국 98.9%)을 하회한 가운데, 6 월 국내 외환보유액 감소(-94.3 억달러) 소식이 원화 환율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물론 적정외환보유액은 대외 개방정도, 수출의존도, 지정학 등 국가간 고유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계점이 존재하며, 현재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보다는 글로벌 달러화 초강세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 시 국내 외환보유액 감소 및 이로 인한 외환위기 불안감을 갖는 것은 지양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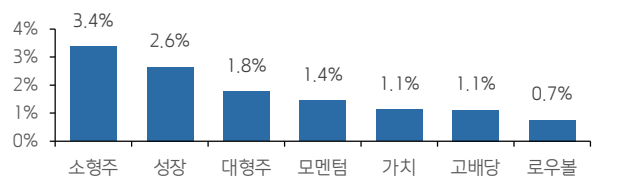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